

지스트-(주)한화, 레이저 대공무기 공동 개발 나선다 !

- 위탁 연구, 컨소시엄 R&D, 선행 연구 등 협력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지난 10년간 국방 레이저 분야 협력 성과..."국방과학 고도화, 미래 무기 개발 기여"



▲ 지스트, (주)한화와 레이저 무기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

(왼쪽부터)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 신우진 수석연구원, 이창열 연구부장, 이영락 소장, 김기선 총장, 한화 김승모 대표이사, 류영관 방산사업본부장/부사장, 조준용 레이저사업부장, 전부원 레이저사업부 차장, 임설 레이저개발1팀장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분야 기업인 (주)한화(방산 부문 대표이사 김승모)와 레이저 대공무기 및 관련 응용기술 확보 등을 위한 업무 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스트와 (주)한화는 ▲위탁 연구 및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 공동 수행 ▲사업 우선권 확보를 위해 기술 위험성이 높은 특정 기술의 발굴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선행 연구 ▲협동 연구를 위한 선도적 연구과제 발굴 ▲연구 인력 교류 및 연구시설물의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지난 **2012년부터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** 지스트와 (주)한화는 국방용 고출력 광섬유레이저 기술 개발, 광섬유 레이저 분야 부품·장비 국산화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다.

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"한화와의 이번 협약으로 미래 방산 기술의 핵심인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방과학 고도화에 기여하겠다"고 말했다.

(주)한화의 방산 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“미래형 무기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지스트와 함께 레이저 기술에 대한 R&D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”고 말했다.

이번 협약식은 8월 30일(화) 오후 지스트 김기선 총장, 이영락 고등광기술연구소장, 이창열 고등광기술연구소 연구부장, (주)한화 김승모 대표이사, 류영관 방산사업본부장/부사장, 조준용 레이저사업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스트 행정동에서 진행됐다.